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대만 진원과학기술대학	기숙사비	TWD 20,750/한 학기
파견지역	대만 신베이시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190215-200111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2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0. 1. 11.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중국에 있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학교에 교환학생을 위한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교환학생도 우리 학교에서 파견된 한국인 학생 두 명, 그리고 대륙에서 왔던 본교 교환학생 몇 명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반배치고사나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고, 본교생 중 중국어가 부족한 일본, 베트남 국적의 학생들이 듣는 중국어 기초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학교 수업에 인지해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실 경우, 진원과기대학이 아닌 다른 학교에 지원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수업에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현지 학교 측에서 순천향 학생들만을 위한 수준에 맞는 수업을 개설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대학에 파견된 학생들을 보면 주로 듣기 수업, 말하기 수업, 독해 수업 이런 식으로 수업이 나뉘어 있고, HSK 수업도 개설된 경우도 봤는데 대만에는 HSK 수업이 없고, 다른 중국어 수업들도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기 보다는 순천향에서 듣는 수업처럼 듣기, 말하기, 독해, 문법 등을 함께 배우는 수업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과제나 시험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였고, 대부분 수업 시간에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참고로 개설 되어 있는 중국어 수업이 몇 개 없어서 남은 학점을 채우기 위해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일반 교양수업이나 전공 수업을 섞어서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파견 첫 학기에 '양안관계', '영화와 동화', 파견 두 번째 학기에 '대만관광사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 대만 교환학생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이 아마 '번체자' 일텐데 진원과기대학에서 하는 모든 수업은 번체자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과제나 시험에서 간체자를 썼다가 다 틀렸다고 채점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진원과기대학은 대만 신베이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인 타이베이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이베이까지 차로 20분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산에 위치해 있고, 학교 바로 앞 교통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하철역까지 나가는게 좀 불편합니다. 학교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10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보통 30분이기 때문에 버스 어플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서 지하철역에만 도착하면 교통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新店區公所에서 공관역까지 10분 정도 밖에 안 걸리고, 타이베이 어디든 3-40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출 후 학교로 돌아 갈 때 버스 시간을 못 맞추면 최대 30분까지 기다려야 하고, 11시 이후에는 학교 정문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는 점이 좀 불편합니다.

대만의 기후는 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 년 내내 비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저희끼리 이야기 할 때 대만은 1년 중 200일이 비 오는 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비가 진짜 자주 옵니다. 그래도 일 년 내내 장마처럼 비가 오거나 그렇진 않고 보통 소나기나 이슬비처럼 오는 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태풍이 오는 7-9월인 것 같은데 그 때는 방학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가 엄청 자주 오고 흐린 날씨가 반복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대만 여름은 정말 덥고 역대급으로 습합니다. 겨울은 10도 밑으로 잘 안 떨어지는 편이라 한국에 비해 안 추운 편이지만 날씨 자체가 습하기도 하고 대만 날씨에 적응되면 추울 수도 있으니 2학기에 파견 되시는 분들은 패딩이나 코트까지는 필요 없지만, 얇은 겔옷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TWD 20,750	내부구조	4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오후 11시 통금, 개인 전열기구 사용 취사 금지, 자정 전 소등		
주요사항	없음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진원과학기술대에는 기숙사 건물이 하나 밖에 없고, 입구도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매일 오후 11시가 되면 기숙사 문이 닫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만 학생증을 찍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11시 이후 카드를 찍고 들어 가면 벌점임) 엘리베이터 앞 출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숙사 입사 시 등록한 지문을 인식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는 학생증을 이용 ! (조금 불편하지만, 안전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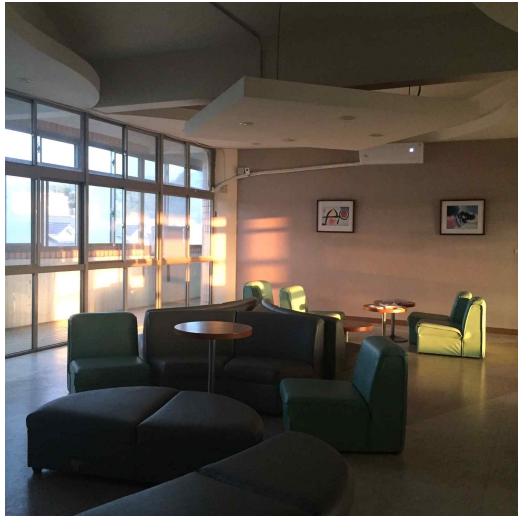
진원 기숙사 4인 1실 방 개인 책상 사진입니다. 다른 학교 중에는 침대와 옷장 등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진원 기숙사 침대, 옷장, 책상, 책꽂이는 모두 붙어 있고 심지어 룸메인 침대와 함께 붙어 있는 구조라 조금 특이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매 층 중앙에 있는 주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는 있지만, 비치된 찜기나
1층에서 사감 선생님이 빌려주시는 인덕션 외에
다른 개인 전열기구를 사용 시 압수당합니다.
주방에 냉장고, 찜기, 싱크대, 테이블이 있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다목적실 사진입니다.
다목적실에는 작은 테이블 여러 개와 소파 의자,
공용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음식 섭취가 불가하고
자정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사진은 없지만 세탁시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각 층마다 기본 세탁기 두 대, 건조기 두 대씩
비치되어 있고, 한 번 돌릴 때마다 대만 돈 10원
입니다. 드럼세탁기가 아닌 구형 세탁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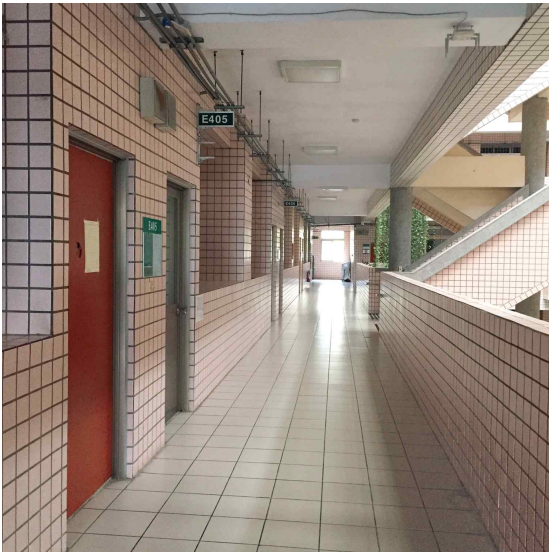
사 진 첨 부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진원과학기술대학 강의실 내부 모습입니다.



강의동 복도 풍경입니다.



학교 학식 사진입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 등

중어권 교환학생으로서 대만에서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실 대만 생활 초반에는 중국어로 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혀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만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점차 중국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항상 저와 대화할 때 저를 기다려주고, 천천히 알아듣기 쉽도록 말해준 덕분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중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른 학생들만큼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처음에 비해 제 스스로도 중국어가 많이 늘었다고 느끼고, 현지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비교적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유학생 비율이 적은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 들을 수 있는 수업도 별로 없고 제 수준과 다른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유학생이 적은만큼 현지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매일 단어를 몇 개씩 외운다거나 문제를 풀다거나 그런 것보다 친구들과 서로의 문화에 대해 나누고,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듣고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언어 공부에 있어서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자 대만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타이베이, 신베이, 지룽, 타오위안, 화롄, 타이중, 난터우, 자이, 가오슝 등 많은 도시를 여행하면서 대만의 산과 바다, 역사유적 등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든 3시간 이상 가는 곳이 거의 없어서 여행하기 편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작은 땅에 이렇게 다양한 자연경관이 모두 모여 있다는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만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번체자를 사용해야 했고, 가끔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륙이 아니라 대만이어서 좋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대륙에 있었다면 자세히 배우지 못했을 양안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고, 홍콩문제를 비롯한 중화권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대륙친구, 대만친구, 홍콩친구의 의견을 다 들어 보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다른 대만의 정부형태와 국회구성방식, 그리고 원주민문화에 대해서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